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辭에 대하여

玄 平 孝

目 次

- | | |
|----------------------|-----------------------------|
| 1. 緒 言 | 4. 諸語形에 대한 層位學的 考察 |
| 2. ‘나무’(木)의 語形들에 대하여 | 5. ‘나무’와 ‘나물’ 語辭에 대한 語源의 考察 |
| 3. ‘나물’(菜)의 語形들에 대하여 | 6. 結 言 |

1. 緒 言

1.1. 方言에 있어서 한 語辭의 語形이 2種・3種・4種……여러 語形으로 나타나는 事實이 있다. 가령 濟州島 方言에서 ‘가루’(粉)란 語辭는 [koru]・[korul]・[kvro]・[karu]¹⁾ 등으로 實現되고, ‘모두’(全部)란 語辭는 [mɔn]・[mɔnttak]・[mɔlcak]・[malccag]・[moto]²⁾ 등으로 實現된다. 이 한 語辭의 語形이 여러 語形으로 實現되는 것을 어떻게 處理하여야 할 것인지, 얼른 決定을 내리기 困難하다. 이들 語形을 純然한 共時態로만 보아 한 形態素의 異形態들로 다루어 넘겨 줄을 것인지, 아니면 이 語形들 사이에 通時性을 認定하여야 할 것인지, 이들 사이에 通時性을 認定할 경우, 어느 語形이 古代形이고 어느 語形이 中世語形, 近世語形인지 速斷키 어려운 問題들이다.

1.2. 本稿에서는 濟州島 方言에서 ‘나무’(木)와 ‘나물’(菜) 두 語辭의 語形들이 어떻게 實現되는가, 그것들을 우선 共時的으로 記述한다. 또 이 語辭들이 他地域의 方言³⁾ 으로서는 어떻게 實現되는가, 그 分布를 解放前과 解放後에 調査・報告된 文獻들을 통하여 알아 본다. 그리고서 이 方言의 語形과 他地域의 方言語形들과를 比較하면서 考察한다. 또 한편 이 語辭들이 文獻上에는 어떻게 記錄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들추어 내고, 그 文獻語를 援用하여 方言의 語形을 論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言語地理上에서 또 文獻上에서 考察한 結果의 方言語形들에 대하여, 이번

에는 層位學的인 考察을 試圖한다. 그리하여 그들 語形의 位置를 定位시키려 한다. 이 層位學的으로 考察하여 各 語形들의 位置를 定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混態를 이루는 여러 語形들 사이의 相互關係는 저절로 밝혀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史的 發達過程도 闡明되이질 것이다. 그리고서 나아가 그 究極의 語形(太初의 形態)에 대해서는 語源의 인 考察을 더해 보려고 한다.

2. ‘나무’(木)의 語形들에 대하여

2.1. 이 ‘나무’(木)란 語辭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鷄林類事’를 논하는 가운데서, 또는 中世語 研究에서 論及되어진 바가 많다.⁴⁾ 허나 이 語辭의 語形에 대한 規定을 아직도 그 見解가 區區한 바 있다.⁵⁾

여기서는 먼저 方言에서 이 語辭가 어떻게 實現되는가 그 語形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2.2. ‘나무’란 말은 오늘날 方言에서는 [nam]·[naŋ]·[namo]·[namu] 등 네 語形으로 實現되고,⁶⁾ 이 네 語形이 모두 共時的으로 使用된다. 이 네 語形 중 어느 것이 더 古語形인지는 일른 斷定키 困難하다. 이 네 語形 중에서 그 使用頻度數는 아마 [naŋ] 形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 다음이 [nam] 形이 될 것이요, [namo]·[namu] 語形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頻度率은 그 話者의 年令層에 따라서 多少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2.3. 다음 이 ‘나무’란 말이 他地域의 方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解放前에 調査·刊行된 文獻에서 보기로 한다.

- (a) [naŋki] 平北 여러 地域, 咸南과 咸北 여러 地域, 平南 价川, 忠南 瑞山·唐津·泰安·禮山
- (b) [naŋku] 平北에서 全南에 걸친 西北半部, 江原 襄陽·江陵·三陟·伊川·鐵原
- (c) [naŋkʰu] 平北 여러 地域, 黃海 新溪, 咸南 安邊
- (d) [naŋkhi] 慶南 여러 地域, 慶北 高靈
- (e) [neŋki] 咸北 여러 地域, 咸南 端川, 慶南 馬山·巨濟, 平南 漢川·永柔
- (f) [naŋi] 平北 여러 地域, 黃海 黃州·平南 平壤
- (g) [neŋi] 咸北 明川·羅南·富寧·茂山
- (h) [naŋkɛ] 慶南 巨濟

以上은 小倉進平博士와 河野六郎씨의 두 著述에서⁷⁾ ‘나무’ 項에 收錄되어 있는 語形들 중에서 現代 標準語 語形인 [namu]와 方言 語形인 [nam]과 [naŋ]을 빼고서 統合一括하여 여기 옮겨 놓은 것이다.

다음 解放後에 調査 報告된 文獻에서 보기로 한다.亦是 여기서도 現代 標準語 語形인 [namu]는 빼기로 한다.

(a) [naʔki]⁸⁾ 全南 黑山島⁹⁾ 全南 靑山島¹⁰⁾ 全南 潭陽¹¹⁾

(b) [naʔku] 全南 여러 地域¹¹⁾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또 慶北 安東 方言 調査 報告한 것을 보기로 한다.

(a) [naʔki] 奉化郡 여러 地域, 安東郡 西部洞・中平洞・美質洞・中洞里

(b) [naʔku] 安東郡 여러 地域, 奉化郡 宜陽里, 榮州郡 北枝二里

(i) [naʔke] 奉化郡 宜陽里

(j) [naʔkʷi] 安東郡 土溪里, 奉化郡 法田洞・巨村里

(k) [namki] 奉化郡 西谷里・巨村里, 安東郡 川前洞

(l) [namku] 奉化郡 宜陽里

(m) [namkʷl] 奉化郡 法田里・巨村里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¹²⁾ 여기서도 現代 標準語 語形인 [namu]는 없었다.

이 安東 方言 調査에서 새로운 發見은 (k) [namki]・(l) [namku]・(m) [namkʷl] 語形들이다. 이들 語形은 日人 學者들의 調査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데, 解放後의 보다 精密한 調査에서 비로소 그 露頭를 캐어낸 것이라 하겠다.

위에 든 他地域의 方言 語形들은 于先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分類할 수 있겠다.

1類 : (a) [naʔki]・(b) [naʔku]・(c) [naʔkʷ]・(d) [naʔkhi]・(e) [nɛʔki]・(h) [naʔke]

(i) [naʔke]・(j) [naʔkʷi]

2類 : (k) [namki]・(l) [namku]・(m) [namkʷl]

3類 : (f) [naʔi]・(g) [nɛʔi]

들과 같다. 그런데 이들 他地域의 方言 語形과 方言(濟州島의) 語形과를 對比시켜 볼 때, 이미 例外로 했던 [namu] 形 外에는 同一한 分布狀을 보여 주는 語形은 없다. 方言 語形에서 [namu]를 除外한 語形들 [nam]・[naŋ]・[namo]와 同一한 語形은 他地域의 方言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方言 語形과 他地域의 方言 語形과의 差別에 대한 論考는 다음 文獻語의 考察이 끝난 후에 가서 究明해질 것이다.

2.4. 李朝時代의 文獻과 高麗語를 收錄하여 놓은 ‘鷄林類事’에서 ‘나무’ 語辭의 語形들을 들추어 보려 한다. 먼저 方言 [namo] 語形의 예부터 보기로 한다.

미른나모 <漢清文鑑 一三・27>

나모공이 <同文類解 下 44>

나모팔기 <東醫實鑑 湯液 二>

나모빌쵸 <訓蒙 中 2>

나모아래안주샤 <月印 117>

이본나모와 <龍歌 89>

들과 같이 [namo] 語形은 15世紀 文獻에서부터 18世紀 末葉의 文獻에 이르면서 줄곧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namo] 語形은 李朝時代를 통하여 줄곧 使用되었던 語

形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語形이 高麗時代에는 어떻게 되었던가, 전혀 使用되어진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鷄林類事’에서 들추어 보기로 한다. ‘鷄林類事’에 採錄되어 있는 ‘나무’ 語辭의 語項은 다음과 같다.

木曰 南記
 松曰 鮐子南
 柴曰 孛南木

이 세 語項 중 ‘南記’·‘鮐子南’은 그 解讀에 있어서 [namo]語形과 關聯될 바가 없고 ‘孛南木’이 問題가 된다. 이 ‘柴曰 孛南木’을 前間恭作씨는 ‘불나모’로 읽고 있고¹³⁾ 故方鍾鉉씨도 이것을 ‘불나모’로 읽고 있다.¹⁴⁾ 또 李基文씨는 ‘南木’을 ‘나모’의 古形 ‘*나모’로도 ‘*나뭇’으로도 읽을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한다.¹⁵⁾ 이와 같이 ‘孛南木’을 ‘나모’ 또는 ‘*나모’·‘*나뭇’으로 읽고들 있다. 이 ‘孛南木’의 表記는 ‘鮐子南’의 ‘南’表記와는 달리 ‘南木’으로 表記되어 있으므로, 單音節 語形 ‘남’의 表記가 아니고, 2音節 語形 ‘나모’ 또는 ‘*나모’, ‘*나뭇’의 表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木’字는 [m]音에 表記되는 경우도 있다.

工木達縣 一云熊閃山 <東國輿地勝覽 一三>
 多羅木只阿察 doromi-aca <元朝秘史 卷七 p. 34>

들과 같은 記錄이 있다. 그러나 단지 이들 예를 가지고서 ‘孛南木’의 ‘木’도 [m]音에 表記된 것에 不過하다 하고, 따라서 ‘南木’은 單音節 語形 ‘남’을 表記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斷定을 내리는 것은 速斷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 ‘나무’란 語辭가 그 語形의 史的 發達段階에서 보아 11·2世紀에 이미 2音節을 취하여서 ‘나모’ 또는 ‘*나모’·‘*나뭇’形을 形成하였겠는가가 問題이다. 허나 이 問題는 매우 장황한 論述이 되겠기 다음 機會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方言의 語形 [namo]와 同一한 語形은 위에 든 文獻語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世紀 쯤 전에서부터 18世紀末까지의 사이에 使用되었다고 指摘하여 둘에 그치겠다.

2.5. 다음은 方言의 語形 [nam]과 [naŋ] 예들을 들추어 보기로 한다.

누븐남기 니려서니이다 <龍歌 84>
 불휘기픈남곤 <龍歌 2>
 밋근남꼰 <龍歌 86>
 남ᄃ로븐ᄃ마라 <月 1-17·54>
 웃거른남키서울오 <朴初 一五·12>
 마르미르른남기오 <法華 四·130>
 남키보튼精靈이러라 <蒙法 8>
 남글썰미아니던 <朴重 上 14>
 소남근엇더후여 <小兒論 1-10>

이들 예는 15世紀에서 18世紀의 文獻語들이다. 그 어느 것이나 다 曲用語尾가 添記되어 있다. 곧 ‘남기’는 主格, ‘남근’은 主題格, ‘남꼴’은 對格, ‘남귀’는 處格, ‘남마로’는 造格, ‘남기셔’는 在格, ‘남기오’는 叙述格들이다. 그런데 이들 各格形에 있어서 그 語幹과 曲用語尾 사이에 ‘ㄱ’ [k]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ㄱ’ [k]음은 語幹에 속할 것인지, 또는 曲用語尾에 속할 것인지, 이것이 오랫동안 學界의 論難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서 논하기로 한다.

2.6. 그런데 ‘2.3’에서 든 他地域의 方言 語形들과 ‘2.5’에서 든 文獻語들을 對比시켜 볼 때, 매우 그 關聯이 깊음을 알 수 있다. 곧 他地域의 方言 語形과 文獻語의 語形들과가 거의 一致하므로, 15世紀의 語形이 아직도 거의 그대로 他地域의 方言에 保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3’의 (k) [namki]는 15世紀의 主格語 ‘남기’ 그대로이고, (m) [namkʷi]은 對格語 ‘남꼴’의 變形이라고 볼 수 있다. 또 ‘2.3’의 (h) [napkɛ]와 (i) [napke]는 15世紀의 處格語 ‘남귀’의 變形이라 할 수 있겠고, 또 (j) [napkʷi]는 마찬가지로 15世紀의 處格語 ‘남귀’의 變形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2.3’의 (a) [napki] · (d) [napkhi]와 (e) [nepki]들도 15世紀의 主格語 ‘남기’의 變形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他地域의 言語生活에 있어서도 (d) [napkhi]는 慶北 高靈 地域에 있어서, 또 (e) [nepki]는 咸北 鏡城 地域에 있어서 各各 主格語로 쓰인다고 한다.¹⁶⁾

이렇게 他地域의 方言과 文獻語를 對比하면서 各格形을 定立시킬 때, 그들 他地域의 方言 語形이나 文獻 語形들은 마찬가지로 語幹과 格語尾로 各各 分析하여 낼 수 있게 된다. 他地域의 方言 語形 (a) [napki] · (d) [naʷkhi] · (e) [neʷki] · (k) [namki]들은 [napk-] · [napkh-] · [nepk-] · [namk-]들과 主格 [-i]로 分析케 되며, 또 (h) [napkɛ] (i) [napke] · (j) [napkʷi]들은 [napk-]와 處格 [-e] · [-e] · [ʷi]들로 分析하게 되며 또 (m) [namkʷi]은 [namk-]와 對格 [-ʷi]로 分析하게 된다. 이와 같이 分析하면 他地域의 方言 語形이나 文獻語의 語形이나 모두 그 語幹은 [namk-] 또는 [napk-]形에 歸一하게 된다.

이렇게 分析하여 올 때 ‘2.5’의 ㄱ트머리에서 疑題로 남겨 두었던 [namk-]의 ‘ㄱ’ [k]의 歸屬問題는 우선 暫定的으로나마 決定이 되어지는 듯하다. 곧 ‘2.5’의 ㄱ트머리에서는 [-k-]가 語幹에 속할 것인지 語尾에 속할 것인지 決定을 못 지었던 것인데, 이제 그 格語尾들을 分析하여 봄으로써 自然 語幹에 우선은 歸屬시키는 셈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k-]는 정녕 이 ‘나무’ 語辭의 語幹의 構成要素로서 不可分의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한다.

2.7. 앞에서 言及했듯이 이 [-k-]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學界의 論難거리가 되어 왔다.

G. J. Ramstedt博士는 ‘namu’(樹)란 말의 處格은 오늘날 ‘namge>nage라’ 하는

데, 이 말의 原形은 [namaʔ] 이고, 그 末音 [ʔ] (spirantic g)가 漸次 母音으로 바뀌어져서 [nama^u>nam^o>nām̩]로 된 것일 것이라 하고, 그 證據로는 一方에 있어서 k音을 가린 [namak-sin]이란 말이 現存하며, 末音 [ʔ]의 消失한 語例로는 ‘무우’(菁)의 主格形 [musur-i] ‘가루’(粉)의 主格形에 [kalgi...]등이 있다고 하였다.¹⁷⁾

또 河野六郎씨도 이 ‘樹’의 ‘나무’란 말은 Ramstedt도 指摘한 바와 같이 [namak-sin]이란 말이 있어서, k要素를 包含했던 말임을 알 수 있다 하고, 李朝初의 ‘나모’는 現在 ‘나무’로 변했는데, 이 形이 ‘-mg’의 ‘-g’가 脫落한 것임은 分明하고, ‘namg^Λ’에서 ‘g’가 脫落하여 ‘nam^Λ>nam^o’와 같이 變化했다고 하였다.¹⁸⁾

이 [namak-sin]의 [namak-]을 論證으로 하여 [namar]를 想定하여 내고, 이 [namar]에서 [namu]語形이 變成되어졌다고 하는 說이나, 또 [namak-sin]의 [namak-]에서 [a]母音이 脫落되어 [namg]를 招來하고, 다시 [g-]가 脫落하여 [nam^Λ]로 되었다고 하는 說이나, 어느 것이나 그 論證의 根據로는 [namak]을 들고 있다. 이 論證의 根據로 삼는 [namak]의 形成은 國語의 造語法에서 볼 때, [-ak]을 一種의 接尾辭라 하게 된다. 이와 同一한 造語法에서 形成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一聯의 語彙들이 있어서, 그러한 解釋을 더욱 갖게 한다. 國語의 ‘바닥·아낙·가락·다락’ 등 許多한 語彙들이 이렇게 하여 形成되어진 말이라 함은 널리 認定되어지고 있는 見解이다.¹⁹⁾

이와 같이 하여 [namak]의 [-ak]을 一種의 接尾辭로 보아 分析하여 버릴 때, 그 나머지는 [nam]이 된다. 그런데 또 한가지 ‘2.6’에서 他地域의 方言 語形과 文獻語의 語形과를 對比시키면서 分析한 結果, 그 語幹은 [namk-]·[napk-]形에 歸一시켜졌는데 이 語幹 [namk-]·[napk-]들에 있어서의 [-k-]는 如前히 남아 있는 問題인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이 [-k-]를 이들 語辭가 曲用時에 그 語幹과 格語尾 사이에 插入되는 要素로 보고자 한다. 이 [k]를 曲用時에 插入되는 要素로 보게 함은 ‘鷄林類事’에 ‘木曰南記’와 ‘松曰鮐子南’이란 두 表記가 있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鮐子南’의 ‘南’은 疑義를 들 餘地가 없이 ‘nam’일 것이요, ‘南記’는 이것을 [namki]로 읽어 主格까지 表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들 있다.²¹⁾ 이 [namki]形은 15世紀語의 形態 그대로인데, 이것을 主格語로 보아 [namk-]와 [-i]로 分析하고, 이 [namk-]를 ‘鮐子南’의 [nam]과 對比시킬 때, [namk-]의 [-k]는 曲用時에 插入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2.8. 以上과 같이 하여 ‘나무’語辭의 語形들, 곧 他地域의 方言 語形들이나 文獻語의 語形들이나 다 그 分析作業을 거쳐 [nam]·[nap]語形에 歸一되어졌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2.5’에서 主題로 삼았던 方言의 語形[nam]·[nap]과 同一한 語形이 나타났다. ‘2.3’에서 分類한 1類의 [napki]·[napkwi]形들과, 2類의 [namki]·[namkwi]들과는, 그 格語尾와 插入辭 [-k]를 分析하여 버림으로써, 方言 語形 [nap]과 [nam]과

同一한 語形이 되어졌다. 그러나 方言 [nam]에 대한 語例로서 分析作業을 거치지 않은 直接的인 것으로서는 ‘鷄林類事’의 ‘松曰鮓子南’의 ‘南’뿐이다. 이것이야말로 方言 [nam]語形의 唯一한 예인 것이다. 이 ‘鷄林類事’는 11世紀語를 表記하여 놓은 것이란다.²²⁾ 이것으로 보아 方言의 [nam]語形은 11世紀 혹은 10世紀語를 保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異形 [nap]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namk-]의 [-mk] 連接에서 [-k-]의 영향을 입어 [-m-]이 [-p]化한 것이라 한다.²³⁾ 그러나 이 [-m-]이 [-p]化한 것이라는 見解는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筆者는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2.10’에서 논하기로 한다.

2.9. 以上 ‘2.3’으로 부터 ‘2.8’에 이르면서 方言의 [namo]·[nap]·[nam]들에 대하여 論證하여 왔다. 그 結果 [nam]語形이 가장 古語形임을 알았다. 이것은 11世紀語를 收錄하여 놓은 ‘鷄林類事’의 記錄이 立證하여 주는 바다. 그러면 方言 [nam]語形은 ‘나무’語辭의 究極의 原語形인가? 이 [nam]形이 ‘나무’語辭의 最古의 語形, 곧 原始語形인가? 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言語의 原始形態로서는 單音節 語形이 많았으리라고 推測할 수 있다.²⁴⁾ 그 單音節語形은 國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C+V+C’²⁵⁾인 경우도 있겠고 ‘C+V’인 경우도 있다. 보다 더 原始形態는 ‘C+V’일 것이다. 이제 이 [nam]語形은 ‘C+V+C’로 形成되어진 語形이다. 그런데 國語에 있어서 ‘ㅁ’ [-m]음은 名詞化 接尾辭로 添尾되어지는 일이 많다.²⁶⁾ ‘자다’(睡眠)에서의 ‘잠’, ‘꾸다’에서의 ‘꿈’(夢)등 許多한 말들이 添尾辭 ‘ㅁ’ [-m]이 添尾됨으로써 形成되어진 말들이다. 이러한 예들로 미루어 보아 問題의 [nam]도 어쩌면 [na+m]으로 分析되어질 語形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여 ‘ㅁ’ [-m]은 名詞化 接尾辭이고, ‘나무’의 原始語(Ursprache)는 ‘*나’이었다고 보는 바이다.

2.10. 이 ‘남’語形은 [na-]와 [-m]으로 分析하여 [-m]을 名詞化 接尾辭라 할 때, 마찬가지로 方法에서 方言의 [nap]語形도 [na-]와 [-p]으로 分析해질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p]接尾辭는 특히 濟州島方言에서는 한 特徵을 이룰 정도로 方言 語彙의 語末에 接尾되는 일이 흔하다. ‘바다’의 ‘바당’, ‘마늘’의 ‘마농’, ‘바늘’의 ‘바농’, ‘아버지’의 ‘아방’, ‘어머니’의 ‘어멍’, ‘가다(去)’의 ‘가당’, ‘와서(來)’의 ‘왕’등 [-p]接尾의 現象은 실로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이다. 물론 이 [-p]接尾는 國語에 한한 現象이 아니고, 알타이語 全般에 걸친 現象으로 알려지고 있는데,²⁷⁾ 濟州島方言에서는 이 [-p]接尾의 現象이 너무도 特徵의이라는 것이다. 이 [-p]接尾의 現象이 濟州島方言에 언제부터 있어온 現象인지 오늘날 處理로서는 밝혀질 수 없으나, 하여간에 ‘남’의 語形을 [na-]와 [-m]로 分析이 可能하다 할 때, 다시 말하여 ‘나무’語辭의 原始語形이 ‘*나’이었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남’도 [na-]와 [-p]으로 分析이 可能하다고 하

게 된다.

앞에서도言及했듯이 [naŋki]의 [-ŋk-]를 [namk-]의 [-m-]이 [-k-]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ŋ]化 해질 것이라 하는데, 濟州島 言語社會의 方言 語形으로서 [ki]등을 接尾시키는 일이 없다. 單獨의 [naŋ]으로 쓰일 뿐이다. 아무런 영향도 줄 接辭가 接尾되어지는 일이란 없다. 이리하여 이 [naŋ] 語形은 原始語形 '*나'에 [-ŋ]이 接尾되어서 形成되어진 語形이라고 하게 된다. 또 他地域의 方言으로서도 [naŋ] [nuŋ] 形이 單獨形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앞의 '2.3'에서 分類한 3類의 (f) [naŋi] (g) [neŋi] 들은 主格語로 쓰인다고 小倉進平博士가 그의 著述에서 添記하고 있다.²⁸⁾ 이 小倉進平博士의 添記를 그대로 믿는다면, 他地域의 方言에 있어서도 [naŋ]의 [-ŋ]이 [namk-]의 [-mk-]에서 온 것이 아니라, 元來 單獨形으로 存在하였던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바이다.

3. '나물' (菜)의 語形들에 대하여

3.1. 여기서는 方言에서의 '나물' (菜) 語辭에 대하여 그 語形들이 어떻게 濟州島 言語社會에서 實現되는가를 알아보고, 그것들을 文獻語 및 他地域의 方言들과 比較하면서 논하려 한다. 方言에서 '나물' 語辭는 單獨形으로서 [nɔmɔ] · [nɔmu] · [namu] 등 세 語形으로 實現된다.²⁹⁾ 이 세 語形이 오늘날 共時的으로 使用된다.

3.2. 다음 이 '나물' 語辭가 文獻上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그런데 方言 語形 [namu]은 現代 標準語 語形이므로 問題될 것이 없고, 나머지 두 語形인데 17世紀 및 18世紀 後期 文獻에는

나물 <漢清文鑑 34>

나물시므자 <朴重 33>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또 大略 15世紀 前期에서 17世紀까지의 文獻에는

나물히누베잇누니 <朴重 25>

나물치 <訓蒙 下 3>

나물엿술서라 <南明集 下 30>

나물홀주누다 <朴初 二二 14>

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文獻語의 語形들과 方言의 [namal]과 [namu] 語形을 對比시켜 볼 때, [namu] 語形이 大略 17·8世紀 語形이고, [namal] 語形은 15世紀에서 17世紀頃까지의 語形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文獻上的 資料로서는 이 이상 더 얻을 수 없는 바이다. 11·2世紀의 高麗語를 收錄하여 놓은 '鷄林類事'에도 이 語辭는 採錄되어 있지 않다.

3.3. 다음 이 語辭의 他地域上的 分布를 알아 보기로 한다. 小倉進平博士의 著述에서 보면,

- (a) [namul] 全南·北, 忠南·北, 慶南·北, 江原 여러 地域
- (b) [nɔmul] 全南·北, 慶南·忠南·여러 地域
- (c) [nomul] 全南 여러 地域

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³⁰⁾ 또 解放後에 調査·報告된 文獻들에서 보기로 한다.

- (a) [namul] 全南 木浦·高興³¹⁾
- (b) [nɔmul] 全南 여러 地域³¹⁾, 全南 靑山島³²⁾
- (c) [nomul] 全南 여러 地域³¹⁾, 全南 靑山島³²⁾·黑山島³³⁾

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namul]의 [na-], [nɔmul]의 [nɔ-], [nomul]의 [no-]들은 각각 15世紀의 語形 [namal]의 [na-]에서 변해진 음일 것이다. 이들 地理上 分布는 모두 15世紀 以後에 變遷해진 語形들이다.

3.4. 그런데 方言에 ‘눔삐’란 말이 있다. 이 말은 標準語 ‘무우’에 該當되는 말이다. 이 말의 構成을 보면 ‘-삐’는 ‘뿌리’(根)와 關聯있는 말일 것이며, ‘눔’은 ‘늑물’의 原語形(Urform)이 아닌가 한다. 15世紀前 혹은 10世紀頃의 ‘나물’의 語形은 單音節 ‘눔’이었다고 假定하며, 그 ‘눔’語形이 ‘눔삐’의 ‘눔’에 保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이 ‘나물’이란 語辭는 ‘x>눔>늑물>늑물>나물’과 같이 變遷過程을 밟아 形成되어진 말이 아닌가 한다.

이 ‘늑물’의 原語形(Urform)이 ‘눔’이었으리라 함은, 語彙의 語形 發達の 一般的인 傾向에 비추어 보아도 그리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語形의 發達は 原始時代 혹은 上古時代に 있어서는 單音節語이던 것이, 차차 時代가 내려 오며 따라 多音節語로 되어 길이 그 一般的 傾向인 것이다. 中國語와 같이 原則的으로 單音節 言語에 속하는 言語도 現代에 와서는 多音節 言語로 發達되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原始時代 혹은 上古時代に 있어서는 비슷한 여러 事物에 대해서도 單一 觀念으로 把握하였으나 時代가 내려 오고 人智가 發達됨에 따라, 그 여러 事物에 대해서 各其 여러 觀念으로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됨에 따라 거기에 새로운 語彙가 必要케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語彙는 전혀 새로운 音韻 連結로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같은 系列의 單音節語에 한·두 音韻을 添加함으로써, 새로운 語彙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는 多音節語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上古時代에서보다도 中世 혹은 近世에서 多音節語는 數的으로 絶對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語形 發達の 傾向에 비추어 보아서도 方言 ‘늑물’의 原語形은 ‘눔’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 標準語에 ‘남새’(菜蔬)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남-’形과 ‘-새’形이 合成되어

이루어진 말이 아닌가 한다. 이 ‘남새’의 ‘남-’이 ‘나물’(菜)과 同義語일 것임은 물론이다. 이 ‘남새’에서의 ‘남-’은 바로 現在 濟州島 方言에서만 殘在해 있는 元來의 ‘놈’의 [p]가 [a]로 변해져서 形成된 말이 아닌가 한다. 小倉進平博士의 著述에서 보면 이 ‘남새’란 말은

- [namul-sɛ] 慶北 東萊·釜山
- [namu-sɛ] 慶南·北, 忠南 여러 地域
- [nam-sɛ] 全南·北 여러 地域
- [nom-sɛ] 全南·北 여러 地域
- [nom-sɛ] 全南 여러 地域

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³⁴⁾ 이들에서 [nam-sɛ]·[nom-sɛ]·[nom-sɛ]들은 ‘놈’의 [-p-]음이 [-a-]·[-ɔ-]·[-o-] 들로 변해져서 各各 되어진 語形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여 全南과 全北, 慶南 여러 地域에 [nam-sɛ]·[nom-sɛ]·[nom-sɛ]의 [-a-]·[-ɔ-]·[-o-] 세 음으로 分布되어 있다는 事實은 [-a-]·[-ɔ-]·[-o-] 세 母音이 어떤 한 母音에서 各各 변해진 것이고, 그 한 母音은 ‘놈’(方言 ‘놈’과 同一語)의 [-p-]이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國語 母音 變化의 傾向에서 그리 믿어진다. 도리켜 말하면 15世紀前 혹은 10世紀 頃의 ‘나물’(菜) 語辭의 語形은 ‘놈’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15世紀後에 이르자 文化中心地에서 새로 생기는 語形의 傳播力에 破碎 당하고 抹殺 당하여 [nam-]·[nom-]·[nom-]形으로 변해지고, 가장 僻地인 絶海孤島 濟州島에서는 ‘놈’形 그대로 ‘놈배’의 ‘놈’에 殘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地理的 事實로 보아서 우리는 다시금 ‘나물’의 原語形이 ‘놈’임을 確信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推想컨대 ‘나물’語形과 ‘놈’과의 中間 段階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中間 段階의 語形이 있었다면, 아마 **na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naɱ*形은 文獻上으로는 물론 言語地理上에서도 그 考證을 뭇 수가 없는 바이다.

3.5. 위의 ‘3.4’에서 ‘나물’(菜)의 原語形(Urform)을 ‘놈’으로 推定하였다. 그러면 ‘나물’의 原語形 ‘놈’은 이 이상 더 分析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음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2.9’에서도 말했듯이 言語의 原始形態로서는 單音節 語形이 많았을 것이다. 이 單音節 語形은 國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C+V+C’ 또는 ‘C+V’인데, 보다 더 究極의 原始形態는 ‘C+V’일 것이다. ‘나물’(菜) 語辭의 ‘놈’은 ‘C+V+C’이다. 그러나 이 ‘놈’形은 ‘나무’(木)의 ‘남’語形을 [na-]와 [-m]로 分音이 可能했음과 같이, 이 ‘놈’形도 어찌던 **naɱ*·[nɔ-]와 ‘ㄹ’[-m]으로 分析되어질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놈’[nɔm]을 [nɔ-]와 [-m]로 分析할 때, ‘ㄹ’[-m]은 名詞化 接尾辭이고, **naɱ*·[nɔ-]는 이 ‘나물’(菜) 語辭의 原始語(Ursprache)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물’(菜) 語辭의 原始語를 ‘*ㄴ’라고 할 수 있음은, 이것을 같은 系統語라고 하는 日本語와 對比시켜 볼 때 더욱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다. 日本語에서는 ‘菜’의 뜻의 語音을 [na]라고 表現한다. ‘菜의 花’를 [na no hana]라고 表現한다. 이 日本語 [na]는 國語의 原始語 ‘*ㄴ’에서 分派되어 나간 語音이 아닌가 한다. 혹은 日本語는 그 音節 構造에 있어서 開音節의 特徵을 지닌 言語이기 때문에, ‘C+V+C’가 아니고 ‘C+V’로 끝나는 語形 [na]로 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 ‘나물’ 語辭가 原始國語에서 그 原始語形으로서 ‘C+V+C’ 構造로 末子音이 結合되어 있는 말이었다면, 日本語에서 한 母音을 더 취해서 2音節語를 形成시켰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現代語에 이르면서까지 單音節 語形 [na]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물’(菜) 語辭의 原始語(Ursprache)가 上古代의 國語에서 ‘*ㄴ’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보며, 이 日本語 [na](菜)는 上古代의 國語에서의 原始語가 ‘*ㄴ’이었음을 傍證해 주는 資料라 하겠다.

위의 ‘3.4’에서 ‘나물’(菜) 語辭의 그 語形 發達の 過程을 ‘x>ㄴ>ㄴ물>ㄴ물>나물’과 같이 밟아 내려 왔으리라고 假定한 바 있다. 이제 이 ‘x’자리를 메울 수 있게 되었다. 곧 「*ㄴ>ㄴ>ㄴ물>ㄴ물>나물」과 같이 메워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나물’(菜) 語辭의 原始語形을 ‘*ㄴ’라고 推定하는 바이다.

4. 諸語形에 대한 層位學的 考察

4.1. 위의 ‘2.3’에서 ‘나무’ 語辭와 ‘나물’ 語辭의 諸語形들에 대하여 各各 究明하였다. 여기서는 그들 諸語形에 대하여 層位學的인 考察을 가해 보려고 한다. 層位學的인 考察을 가함으로써 그들 各 語辭의 語形들의 相互關係를 밝힐 수 있겠고, 또 어느 語形이 起源的인 語形인가를 闡明하여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言語의 層位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傍證을 얻는 方法으로서 言語史를 들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地理的 分布事實과 文獻上 記錄事實을 對比하면서 考察하여야 한다. 여기 ‘나무’와 ‘나물’ 두 語辭의 諸語形들에 대하여 文獻上 事實과 地理上 事實을 들면서 그 層位를 定位시켜 보려 한다.

‘2.’에서 ‘나무’ 語辭의 原始語形 곧 最古의 語形을 ‘*나’로 假定하여 내었고 또 ‘3.3’에서는 ‘나물’ 語辭의 原始語形을 ‘*ㄴ’로 假定하여 내었다. 이 ‘*나’와 ‘*ㄴ’는 오늘날 文獻上에서는 물론 言語地理上에서도 그 露頭를 찾아 볼 수 없는 길이 埋沒되어 버린 語形들이다. 이 두 ‘*나’와 ‘*ㄴ’形은 두 語辭의 原始語形이요 最古의 形態다. 말하자면 이들 語辭의 起源的인 것으로 有史 以前의 形態인 것이다. 이 두 語形 ‘*나’·‘*ㄴ’는 두 語辭의 各語形이 埋沒된 地層 중 最古·最低의 地層에 埋沒되어진 것으로 이

두 ‘*나’·‘*ㄴ’의 地層을 第1紀層이라 하게 된다.

4.2. 다음 ‘남’·‘낭’과 ‘눔’語形의 層位이다. 이 ‘남’은 ‘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11世紀의 語形이다. 이 ‘남’·‘낭’語形이 11·2世紀에 있어서는 地理的으로 널리 分布되어 使用되었던 것일 터인데, 濟州島 외의 他地域에서는 일찌기 新語形들 [namk-]·[nan-]등에 의하여 埋沒되어 버렸고, 改新派의 勢力이 좀처럼 傳播되어지지 않는 絶海孤島 濟州島에 아직 그 露頭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또 하나의 異形 [naŋ]도 그 語形 構成 段階로 보아 ‘남’形과 거의 年紀를 같이하는 것이라 본다. 이 [naŋ]形은 ‘2.10’에서 言及했듯이, 아직 他地域의 方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濟州島 地域에서는 가장 빈번히 使用되는 語形이다. 이 語形도 일찌기는 地理的으로 널리 分布·使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던 후 새로이 생겨나는 語形 [namk-]등으로 말미암아 거의 埋沒 당하여 버리다가, 南北 兩端 곧 咸北의 茂山과 平北의 厚昌 그리고 濟州島에 아직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또 ‘나물’ 語辭의 ‘눔’語形은 文獻上에서는 물론 地理上에서도 濟州島 以外 地域에서는 그 露頭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눔’語形은 ‘누물’語形의 原語形(Urform)인데, 이 語形은 그 새로이 생긴 ‘누물’語形에 의하여 他地域에서는 完全히 埋沒되어 버렸고, 오직 濟州島 地域에서 ‘눔뻬’란 合成語에 保傳되고 있을 뿐이다.

대개 말이란 時間이 經過되고 그 使用 地域이 다름에 따라 分裂·分派되어 나가고 生成·死滅하여 나가는 것인데, 이 말이 生成하여 왔다가 死滅하여 가는 過程에서는, 그 死滅하여 버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言語地域의 어디인가에는 그 片鱗이 남아 있다던가, 派生語 따위를 發生시킨다던가 한다.⁸⁵⁾ 이 ‘눔’語形이야말로 韓國의 모든 地域에서 거의 埋沒되어 버리다가, 改新派의 勢力이 좀처럼 傳播되어지지 않는 絶海孤島인 濟州島에 그 露頭를 드러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남’·‘낭’과 ‘눔’語形의 地層을 第2紀層이라 하게 된다.

4.3. 다음은 ‘나모’語形과 ‘누물’·‘누물’語形의 層位이다. 文獻을 들추어 볼 때 國語史는 우리에게 ‘나모’語形이 대략 15世紀 좀 전에서부터 18世紀 末頃까지에 使用되었었다는 事實을 가르쳐 준다. 地理的 公布 事實로는 他地域上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낭기’·‘남기’形들이 빈번히 使用되는 것으로 보아, 이 語形도 어느 地域 어디인가에는 使用되어질 법한 것인데, 이것이 調查報告 文獻上에 나타나지 않음은, 혹시 調查上의 疏漏에서가 아닌가 여겨진다. 濟州島 地域에서는 言衆들 간에 言語 表現에서 가끔 實現된다.

한편 ‘누물’과 ‘누물’語形은 어떠한가? 文獻에 의하면 ‘누물’語形이 대략 17·8世紀 頃에 使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누물’語形이 15世紀 좀 전에서부터 17世紀 頃

까지의 使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나모’語形과 ‘느물’·‘느물’語形들은 文獻上에 나타나는 年紀를 보거나, 그 語形의 構成으로 보거나, ‘남’·‘놈’形들보다는 나중 層位의 語形으로 第2紀層이라 하게 된다.

4.4 다음은 ‘나무’와 ‘나물’語形의 層位이다. 이 語形들은 現代 標準語 形式으로 ‘나무’와 ‘나물’ 두 語辭의 方言 地層 중에서 가장 새로운 地層으로 第4紀層이라 하게 된다. 말하자면 最新紀의 沖積層에 該當된다.

4.5. ‘2.’에서 推定한 바와 같이 ‘나무’語辭의 語形은 ‘*나’·‘남’·‘낭’·‘나모’·‘나무’ 등 다섯이 있었다. 그러나 語形들은 言語 層位上으로 본다면 ‘*나’ 語形 層位 위에 ‘남’·‘낭’ 語形의 層位가 쌓아지고, 또 이 ‘남’·‘낭’ 語形 層位 위에 ‘나모’ 語形 層位가 쌓아지고 해서, 이 ‘나무’(木) 語辭의 濟州島 方言地層은 四重層位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 ‘3.’에서 推定한 바 ‘나물’(菜) 語辭의 語形도 ‘*누’·‘놈’·‘느물’·‘느물’·‘나물’ 등 다섯이 있다. 그러나 이 ‘나물’語辭의 語形들도 言語 層位上으로 본다면 ‘*누’ 語形 層位 위에 ‘놈’ 語形 層位가 쌓아지고, 이 ‘놈’ 語形 層位 위에 ‘느물’·‘느물’ 語形 層位가 쌓아지고, 이 ‘느물’·‘느물’ 語形 層位 위에 ‘나물’ 語形 層位가 쌓아지고 해서, 이 ‘나물’ 語辭의 濟州島 方言地層도 역시 四種層位를 이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 緒言에서 말했듯이 方言에 있어서는 한 語辭의 語形이 매우 混態를 이루어, 그 語形이 2種·3種·4種……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러 語形의 경우라 할지라도 層位學의 方法을 援用하며, 그 各各을 地理의 事實과 文獻의 事實에 對比시키면서 紀層別로 區分하여 考察한다면, 그 여러 語形의 發達 過程이나 相互間의 關係는 물론, 또 그 여러 語形들이 事實 變遷하며 나가는 어느 段階에서 分派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歷史的 變換期에 借用하여 들어 왔다거나 한 事實들을 闡明하여 낼 수 있겠고, 또 그 語辭의 歷史를 엮어 놓는 일도 되리라 본다.

위에서 ‘나무’와 ‘나물’ 두 語辭에 대하여 層位學의 考察을 함으로써, 이 두 語辭의 完全히 埋沒되어 버린 語形에서부터 오늘날 現在 使用되는 語形에 이르기까지의 諸語形의 層位가 定立하여졌고, 그들 語形間의 相互關係를 밝혀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 國語史(語彙史)를 再建하는 일도 되어졌다고 본다.

5. ‘나무’와 ‘나물’ 語辭에 대한 語源的 考察

5.1. ‘2.’에서는 濟州島 方言에서의 ‘나무’(木) 語辭의 語形으로서 ‘*나’·‘남’·‘낭’·‘나모’·‘나무’ 등 다섯 語形을 推定하여 내었다. 그리고 이 다섯 語形 중 ‘*나’를 原

始語形(Ursprache)이라 하였다. 또 '3.'에서는 역시 濟州島 方言에서의 '나물' 語辭의 語形으로서 '*나'·'남'·'나물'·'나물'·'나물' 등 다섯 語形을 推定하여 내었다. 그리고 이 다섯 語形 중 '*나'를 原始語形이라 하였다. 筆者는 이 두 原始語形 '*나'와 '*남'을 이 두 語辭의 起源의인 어떤 同一한 語音에서 變遷해진 形態로 보고자 한다.

5.2. 대개 '起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意味가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떤 事物의 어떤 機能이나 現象이 最初로 나타나는 太初의 形態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事物의 어떤 機能이나 現象이 最初로 나타나게 된 直前的 源泉이 되는 段階, 곧 그 事物의 太初의 形態보다 앞서는 以前的 段階에 관한 것이다. 前者를 太初의 形態라 한다면, 後者를 太初의 形態의 前段階라 할 것이다. 따라서 言語의 起源에도 實質的으로 言語라 할 수 있는 言語로서의 太初의 形態와, 實質的으로 言語라 할 수 없는 太初의 言語形態보다 先行한 言語의 밑바탕이 되는 前段階가 있다고 하게 된다. 또 혹은 이 前段階에서부터 太初의 形態로 移行하는 過程을 '起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起源'이라면 이 太初의 形態 以前的 段階로만 여기기 쉽다. 事實 言語學에 있어서 從來 이러한 言語의 太初의 形態 以前的 段階에서 그 語源을 찾으려고 思辯的으로 論究해 왔던 것이 어김 없는 事實이다. 그러한 傾向에서 從來 言語의 起源說도 가지가지가 나타났다. 神授說·奇蹟說·模倣說·感動說·發明說·生得說등 許多한 說들이 있다.

5.3. 筆者는 여기서 言語의 起源形을 이 '太初의 形態'의 것에서 찾으려 한다. 그래서 '나무' 語辭의 起源形과 '나물' 語辭의 起源形을 '*나' '*남'의 前形態, 곧 太初의 形態로서 잡고자 한다. 이 '*나'와 '*남' 語形은 이 '나무' 語辭와 '나물' 語辭의 根源이 되는 語形이요, 또 이 以上 더 작은 要素로는 分析이 不可能한 語形이다.

이 '나무' 語辭의 原始語形 '*나'와 '나물' 語辭의 原始語形 '*남'은, 그 母音 [a]와 [ɸ]의 差異만 있다. 原始時代에 있어서 이 두 母音의 差異가 어느 程度였는지는 오늘날 알 길이 없으나, 이러한 어떤 同一한 語源形에서 變遷해진 結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나무' 語辭의 '*나' 語形과 '나물' 語辭의 '*남' 語形을 同源語로 보게 됨은 日本語와 比較하여 볼 때 더욱 그리 보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3.5.'에서도 言及하였지만 '나물' 語의 日本語는 [na]로 表現되어진다. '나물' 語辭의 日本語 語音 [na](菜)는 原始時代에 國語에서 分派되어 나간 語音이 아닌가 하며, 이 '나물' 語辭의 語音을 日本에서 [na]로 表現하여, 國語의 '나무'(木)의 原始 語音과 同一한 語形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무'와 '나물' 또는 日本語 [na](菜)가 모두 同源語임을 立證하여 주는 것이라 본다.

또 한편 國語에 있어서 現代 標準語에서 菜蔬의 뜻의 語音 '남새'의 '남'의 '나무'

(木)의 11世紀의 語音 [nam](濟州島 方言 語形과 同一한 語形)과 同一하다는 점등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나무’(木) 語辭와 ‘나물’(菜) 語辭가 元來 同一한 語源의 語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4. 위의 ‘5.1.’에서 ‘나무’ 語辭의 ‘*나’와 ‘나물’ 語辭의 ‘*ㄴ’을 起源的인 어떤 同一한 語音에서 變遷해진 形態로 보려고 하였다. 原始時代의 우리 國語의 音韻體系가 밝혀지지 않은 오늘날의 處地에서는, 어느 것이 起源的인 語音이라고 斷定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語音 곧 ‘*나’와 ‘*ㄴ’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이 두 語音 중 어느 하나가 ‘나무’와 ‘나물’ 語辭의 起源的인 語音이었을 것이다.

‘*나’와 ‘*ㄴ’ 이 두 語音 중 어느 한 語音으로 ‘木’의 뜻과 ‘菜’의 뜻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아니 原始時代에 있어서는 ‘木’의 뜻과 ‘菜’의 뜻의 分化가 原始人들의 觀念에 채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 ‘나무’와 ‘나물’ 두 語辭뿐이 아니라, 其外 여러 語辭들이 觀念의 分化가 생기지 않은 채 同一한 語音으로 表現되었을 것이다.

原始時代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비슷한 事物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同一한 事物로 觀察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言語 表現에 있어서도 비슷한 事物은 따로 區分하지 않고, 同一한 語音으로 表現하고, 同一한 語義에 包括시켜 表現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時代가 지남을 따라서 人智가 發達되고, 그들의 思考上에서 觀念 分化가 생겨 同一하게 認識되던 事物들이 差異 있게 觀察되어지고, 따라서 같은 語音으로 表現하다가, 이제는 區別하여 表現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거기에 새로운 語彙가 必要케 되어서 이미 있는 語形을 補強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語彙를 派生시켜 나타내게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두 語音 ‘*나’와 ‘*ㄴ’로 區分하여 ‘木’의 語義와 ‘菜’의 語義를 表現하게 된 것은 原始社會에 있어서도 時代가 좀 내려온 以後의 일이다. 原始時代에 있어서 原始人들은 ‘木’과 ‘菜’를 同一한 物體로 認識하였었고, 同一한 語音 곧 ‘*나’ 아니면 ‘*ㄴ’ 語音으로 表現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두 語辭 ‘나무’(木)와 ‘나물’(菜)은 同源語라고 結論할 수 있다.

6. 結 言

6.1. 以上 ‘2.’와 ‘3.’에서 ‘나무’(木)와 ‘나물’(菜) 두 語辭의 方言 語形들을 考察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濟州島 地域에서 現實的으로 使用되는 語形뿐만이 아니라, 埋沒되어버린 語形까지도 推定하여 보았다. 그리고서 나아가 ‘4.’에서는 層位의 方法을 採用하여 各 方言 語形들에 대하여 그 地域的 事實과 文獻的 事實을 對比하면서, 그것들의 地層上의 層位를 定立하여 보았다. 이 地層上의 層位를 定立하는 가운데서 各 語形

問의 相互關係를 밝혀 낸은 물론, 이 두 語辭의 語彙史를 再構하여 내는 結果도 되어 졌다고 본다.

끝으로 '5.'에서는 두 語辭에 대한 語源的인 考察을 가하였다. 두 語辭의 原始語形에서 太初의 形態로 거슬러 올라 가면서, 이 두 語辭는 그 起源을 같이한 말임을 밝혀 내었다.

6.2. 이 語源問題에 있어서는 같은 系統語들과 또는 國語內에서도 그 起源을 같이하였다 볼 수 있는 여러 語彙들과 比較하면서, 좀더 仔詳하고도 包括的인 論述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이 두 語辭의 起源形도 具體的으로 指摘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後日로 미루고 이만 그친다.

- 註 1) 拙 著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p.355. 1962.
 2) 拙 著 同上書 p.434
 3) 本稿에서는 濟州島 地域의 方言을 '方言'이라 하고, 其外의 다른 모든 地域의 方言을 '他地域方言'이라 부르기로 한다.
 4) 前間恭作 '鷄林類事 麗言攷' 1925.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2輯) 1955
 李基文 '鷄林類事의 一考察' (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1957.
 高柄翹 '鷄林類事의 編纂年代' (歷史學報. 10輯) 1958.
 金喆憲 '鷄林類事研究' (국어국문학. 25호) 1962.
 李基文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西文化. 8輯) 1968.
 5) G. J. Ramstedt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SFOu LV II p.445. 1928.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改' 一欽語考一 pp.111-113. 1942.
 南廣祐 '名詞 曲用에 있어서의 ㄱ의 考察' (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1957.
 李基文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 (震壇學報. 23號) 1962.
 劉昌惇 '李朝國語史研究' p.190. 1964.
 6) 拙 著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p.389. 1962.
 7) 小倉進平 '朝鮮語方言研究' 上卷 pp.333~334. 1944.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改' 一欽語考一 (方言語彙 pp.53-54) 1942
 8) 記述의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한글로 表記된 것을 romanize하여 옮겨 놓는다.
 9) 國立博物館 特別調查報告 '西海島嶼調查報告' p.197. 1957.
 10) 洪淳鐸 '靑山島方言語彙' (湖南文化研究. 4輯. p.187) 1966.
 11) 崔鶴根 '全羅南道方言研究' (韓國研究叢書. 17輯) p.100. 1962.
 12) 成均館大學校 '安東文化國學術調查團' '安東文化國學術調查報告書' p.192. 1966.
 13) 前間恭作 '鷄林類事 麗言攷' p.113. 1925.
 14)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2輯. p.198) 1955.
 15) 李基文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8輯. p.222) 1968.
 16) 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 上卷. p.334. 1944.
 17) 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 下卷. p.116. 1944.
 18)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改' 一欽語考一 pp.111~113. 1942.
 19) 李崇寧 '接尾辭 K(g), ㄱ에 對하여' (서울大 論文集-人文社會科學. 4輯) 1956.
 南廣祐 '國語學論文集' p.145. 1962.
 20) 南廣祐 '國語學論文集' p.145. 1962.
 21) 前間恭作 '鷄林類事 麗言攷' p.33. 1925.
 李基文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8輯. p.234. 腳注) 1968.

- 22) 高柄 翹 ‘鷄林類事的 編纂年代’ (歷史學報. 10輯) 1958.
- 23)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一銜語考— p.111. 1942.
南 廣 祐 ‘國語學論文集’ p.144. 1962.
- 24) 李 熙 昇 ‘國語學概說’ p.249. 1955.
- 25) 여기 ‘C’는 子音을 ‘V’는 母音을 나타낸다.
- 26) 南 廣 祐 ‘國語學論文集’ p.238. 1962.
- 27) 李 崇 寧 ‘國語造語論攷’ pp.13-24. 1961.
- 28)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p.334. 1944.
- 29) 拙 著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p.390. 1962.
- 30)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p.200. 1944.
(河野六郎씨의 ‘朝鮮方言學試攷’ 一銜語考—에는 이 말이 收錄되어 있지 않다)
- 31) 崔 鶴 根 ‘全羅南道方言研究’ (韓國研究叢書. 17) p.94. 1962.
- 32) 洪 淳 鐸 ‘青山島方言語彙’ (湖南文化研究. 4輯. p.187) 1966.
- 33) 國立博物館 特別調查報告 ‘西海島嶼調查報告’ p.199. 1957.
- 34)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pp.200~201. 1944.
- 35) A. Dauzat著. 松原・横山 譯 ‘フランス言語地理學’ p.35. 東京. 1958.